



잠 못 이루는 열대야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야간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9급 공채 사상최대 20만명 응시...취업준비생 3명중 1명은 '공시족'

公試 열풍...공무원에 목매는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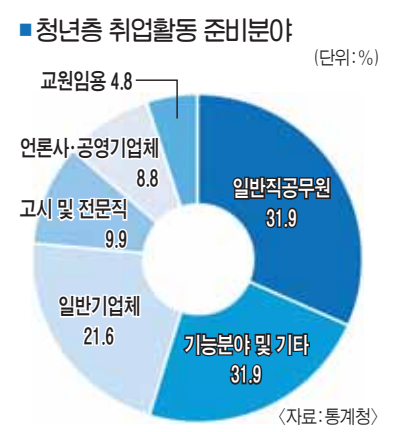
지방직도 수만명씩 몰려...경쟁률 갈수록 치솟아

취업준비생인 최모(34·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8년 째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다. 행정 사무관이 꿈이었던 최씨는 4년제 국립대학을 졸업한 뒤 고시에 매진했지만 수차례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최근에는 9급 공무원까지 기회를 넓혀 매년 공무원직에 도전중이다.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최씨의 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인원은 2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 숫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행정직과 기술직 등 국가공무원 2738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시험에 20만4698명이 응시원서를 내 경쟁률이 74.8대 1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558명이 늘었는데 지난해 경쟁률(72.1대 1)보다 올라갔다. 응시인원은 2011년 10만5085명, 지난해 11만4534명과 비교해 2배에 육박한다. 광주지역에서도 올해 9급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인원은 1만3417명으로, 지난해 1만941명보다 22.6%나 늘었다.

지방직공무원의 인기도 상승했다. 9급 기준 올해 460명을 선발하는 광주시 지방직 공채시험은 올해 사상 최초로 응시인원 1만명을 넘겼다. 채용규모가 예년보다 2~3배가량 확대된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광주시



9급 공채시험은 지난 2009년 30.6대 1, 2010년 34.3대 1, 2011년 49.9대 1, 2012년 35.6대 1로 매년 3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9년부터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일부직렬 제외)되면서 30대 수험생들이 증가한 것도 치열한 경쟁에 한몫했다.

이처럼 공무원이 '1등 직업'으로 올라선 이유는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 탓이 크다. 취업준비생들이 '바늘 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해도, 민

간 기업은 장년을 보장하지 않는 반면, 9급 공무원은 특별한 기술이나 학벌이 없어도 합격만 하면 안정된 신분과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19일 내놓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15~29세) 61만4000명이 취업시험을 준비중이며 이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19만6000명으로 31.9%에 달했다. 취업 준비생 가운데 공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월 28.7%로, 1년 새 3.2%포인트나 오른 반면 일반기업체 취업 준비생은 21.6%로 지난해 22.4%에서 0.8%포인트나 감소했다.

공시족을 일반직공무원과 언론사 및 공영기업체·교원임용고시·고시 및 전문직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무려 55.4%에 이르러 취업준비생 2명 가운데 1명은 공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가속

땅값 천정부지...송정상권 들쭉

광주시,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내년 착공, 2017년까지 2800억원 투자
12만2000㎡...대형마트·호텔 등 들어서



호남고속철도(KTX) 개통과 함께 '호남권 교통·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송정역복합환승센터'(조감도) 개발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사업자와 협약을 추진하는 등 본격화에 오르면서 송정지역이 신흥 대형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모면에서 광주의 최대 상권인 '신세계백화점-U스퀘어'와 비슷한 면적에 대형 마트, 호텔·관광시설 등이 들어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상가의 땅값이 폭등하는 등 송정상권이 들쭉이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서희건설 컨소시엄(송정 라데팡스)과 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희건설 컨소시엄에는 서희건설 60%·교보증권 30%·KT 10%가 출자자로, 신한은행과 흥국자산운용이 금융기관으로, 금호터미널(주)은 임대업체로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공사기간 36개월) 총사업비 2300억원을 투자, 총 부지면적 2만2000㎡에 지하 3층~지상 11층(연면적 12만2000㎡)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연면적으로만 비교하면 광주 신세계-U스퀘어 상권(13만여㎡)과 맞먹는 규모다.

센터에는 환승터미널을 비롯한 주차장, 비즈니스 호텔(150실), 영화관, 상업·유통(대형마트) 판매시설, 문화·관광·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7월말 착공 예정으로 524억원을 투자해 KTX 광주송정역사를 건설한다.

이번 광주송정역 1단계 개발사업에 총 28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송정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특히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호남고속철도가 개

되면 2단계 개발사업으로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주변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의료(병원)시설과 도심형 테마파크 등 각종 편의시설도 건립해 교통·물류·관광·문화와 연계하는 '호남권 랜드마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송정역에서 서울까지 93분, 인천공항까지 129분이 소요돼 남도문화·관광 허브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 송정역세권의 대규모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송정역 주변 상가는 평당(3.3㎡) 1000만원 이상을 제시해도 팔겠다는 건물주가 없을 정도로 땅값이 치솟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송정지역이 광주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청렴식권'으로 공무원 비리 싹 자른다

광양시가 공무원의 부패 차단을 위해 민원인·공무원이 함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청렴식권을 도입했다.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다. 대부분의 비리가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전에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이 구내식당에서 함께

맞춰 나눠줄 예정이다. 건축·건설·위생 등 민원이 많은 인·허가나 계약관련 업무를 가진 부서에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청렴식권 이용 활성화 위해 식권을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악용 사례 등을 막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이 이용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게 된다.

/광영기자pyj4079@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및 화정 서비스센터 오픈

메르세데스-벤츠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최상의 품격과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공식 서비스. 이제 광주 전시장 및 화정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경험하십시오.

오픈 일시 | 2013년 7월 2일
문의 전화 | 광주 전시장 (062) 226-0001 화정 서비스센터 (062) 376-2556
홈페이지 | www.gibenz.com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광주 전시장 (062) 226-0001 화정 서비스센터 (062) 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